

민주, 전대 모바일투표 폐지론 신경전

친노 “국민참여 기여… 기술적 보완해 유지”

비주류 “특정세력 동원 표심 왜곡 드러나”

민주통합당이 대선 폐배에 따른 철저한 반성과 당내 혁신을 위해 회초리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물밑에서는 차기 전당대회에서의 경선 룰을 놓고 계파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경선 룰의 핵심은 모바일 투표 폐지 여부로 접두고 있으며 친노 그룹을 중심으로 한 주류는 모바일 투표제가 보완 유지되어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주류 층에서는 즉각적인 철폐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모바일 투표는 경선 험행 제고와 국민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하겠다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두 차례의 전당대회

는 물론 총선 및 대선 후보 경선에 도입됐다.

하지만, 친노그룹을 중심으로 한 주류 층이 도입을 주도한 모바일 투표는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과 후유증을 보였다.

표심 왜곡과 동원·조작 가능성, 그리고 시스템 불안정과 오류 등으로 인해 지난해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일부 주자들의 경선 일시 보이콧까지 촉발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모바일 투표 선거인단 모집이 과열되면서 투신 자살 사건까지도 발생했다.

이런 부작용과 폐해를 극복하고 전

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투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주류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

반면, 친노그룹은 중심으로 하는 당내 주류 세력은 모바일 투표제에 대한 보완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친노그룹의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모바일 투표는 이미 민주당의 역사가 됐다”며 “단점과 폐해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류 층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투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주당의 문호를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당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경선 방법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노그룹은 중심으로 하는 당내 주류 세력은 모바일 투표제에 대한 보완을 통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친노그룹의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모바일 투표는 이미 민주당의 역사가 됐다”며 “단점과 폐해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보완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류 층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국민 참여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투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면 안 된다”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민주당의 문호를 더욱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동구, 저소득층 아동 영어체험 지원사업

구의원 친동생 업체 선정 특혜 논란

참가비용 적정성도 의문

광주시 동구가 소속 구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청년시설에서 구(區) 사업인 영어체험활동지원 사업을 펼치기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저소득층 아동 영어체험마을 활동지원사업 명목으로 광주시로부터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구는 이 특별교부금으로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광주 A영어체험마을에서 저소득층 200명(초교 5년)을 대상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영어체험 활동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구는 관내 서석동에 광주

일고 있다.

A영어체험마을은 동구의회 B구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 B구의원은 동구의회에서 아동·복지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 사회도시 위원회 소속이어서 특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 참가 비용 논란이 되고 있다.

동구가 참가 비용 적정성을 제대로 따졌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현재 동구에선 참여 아동 한 명당 3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성남 영어마을 참가비용은 2박3일 일정으로 한 명당 15만 원이며 서울 영어마을은 4박5일 일정으로 2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5박6일 일정으로 59만8000원이다.

특히 동구는 이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 6000만원 전액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정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동구청이 특정 영어마을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구의원은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영어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실무부서에 제안, 특별교부금을 받게 됐다”며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청·시청 등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줄 만큼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A영어체험마을이 프로그램·시설 측면에서 우수해 이곳으로 선정했다”며 “A영어체험마을이 B구의원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곳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참배만 하면 사과 되나”… PK도 따끔한 회초리

민주당 “뼈깎는 자성”

민주통합당이 16일 지난 18대 대선의 전략적 요충지인 부산·경남(PK) 지역에서 두 번째 ‘회초리’ 민생현장 방문에 나섰다.

전날 첫 일정으로 ‘텃밭’인 호남을 방문한 데 이은 것으로, 민주당지도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정치적 고향에서 지지층을 달래는데 노력했다.

호남에서 “한심하다”, “호남은 그만 좀 이해해 먹으라”는 손소리를 들었던 민주당지도부는 이날도 따끔한 ‘회초리질’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나 이 지역에서 득표율 40%에 가까운 높은 지지를 받고도 대선에서 패한 데 대한 질책과 원망의 목소리가 높았다.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린 당지도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 김광수 사무처장은 “후보도, 시민도 열심히 했지만 대선 기간에 뛰어난 득표율을 내놓았던 민주당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간담회에 앞서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한 당지도부가 참회의 삼배를 하는 도중에는 자신들을 민주당 대의원이라고 주장한 시민이 “참배만 하면 사과가 되느냐”며 “이런 생활을 시간에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외쳤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16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헌화하고 있다.

정부 조직개편 국회 상임위도 명칭 조정 고민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의 명칭은 물론, 상임위의 소관 부처 및 업무 등이 정부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통상통일부·행정안전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자치경제부·국토해양부 등 일부 상임위의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개로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원회 문제를 고려한 조정도 예고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출족·밀실 심사 논란의 해법으로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다른 상임위와의 결합 금지 방안 등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예결특위 개선 필요성을 거론한 상태다.

/박지경기자 jkpark@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 급하게 처분하실 부동산이 있으신가요?

조용히 소리소문 없이 물건 처분해 드립니다.

● 수익형 부동산을 찾으시나요?

월세 수익과 매도 차익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 여유 자금이 있는데, 투자처를 찾고 계시나요?

전국 매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땅이 있으신니까?

은행 대출에서 건축, 분양까지 상담해드립니다.

● 전국 랜드마크 빌딩 다량 확보!

● 10억~50억! 100억! 200억 물건 다량 보유 및 구함.

● 고객 비밀 보장.

● 모든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거나 개발하고 싶은분은

전화접수 후 사무실 내방하시면 귀한시간 내주신다면 꾸미

보답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맞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평생 고객에게 신뢰를 남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매물 ■

1. 서구 상무지구 베인도로 최고 상권 초대형빌딩.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건물로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상가.

대지 1058평, 건평 4295평.

2. 서구 상무지구 내 물좋은 사우나.

대지 524평.

3. 서구 상무지구 중심상가에 있는 건물로서 월세 수익률이 높은 빌딩.

대지 151평, 건평 939평.

4. 서구 상무지구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중급 호텔.

대지 850평, 건평 2,620평.

5. 북구 대체형 사무지 대지 1,932평 건평 2,710평.

6. 서구 치평동 최고의 위치 빌딩 (광고호판, 부자기자 최고).

대지 300평, 평방 1700만원.

8. 송정리역 부근 상업지역 내 저렴한 땅 1,500평. (투자유망)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 용도 •

전원주택, 토수원

연수원, 절, 현수미 등

16,789평방미터(약 5,078평)

백암산 남쪽(정상호수위)

장성군 북면

쌍용리 7-1번지(지번 17필지)

5억5천만 원

위 토지는 장성 백암산 남쪽 아래로

5,078평 전부가 사용 가능한 토지로서

차량용 우수한 자질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편으로 본토지에서는 남쪽으로 강상

호수가 내려다보이며 풍수지리가

최고로 훌륭하다.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